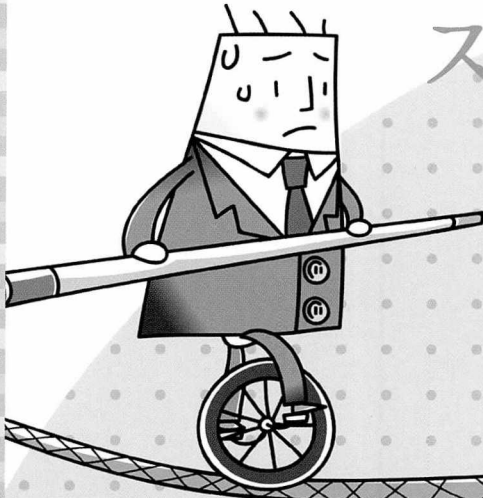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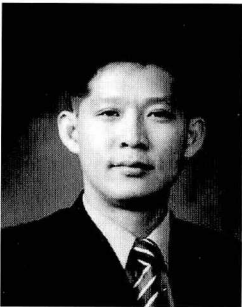
한·EU FTA 협상을 지켜보며...



한·EU FTA

한·미 FTA

시작부터 끝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는 또다시 EU와의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필자가 일단 오리업에 종사하는 축산인이다보니, 국내 농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FTA 협상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로 보아 의지는 확고한 듯 하다.

그간 한·미 FTA 협상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때문인지 이번 EU와의 협상은 미국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난 3차 협상 결과를 들어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가 중요한 이유 중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미국에 대응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라는 점에 있다. 지난해 EU의 GDP(국내총생산량)는 14조 3000억 달러로 미국의 12조 9000억 달러보다 컸으며 27개의 회원국의 총 인구는 4억 8700명에 달할 정도이니 우리나라가 유럽 전체를 상대하는 무역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 2차 협상이 서로 눈치만 살폈던 탐색전이라고 한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서로의 요구사항을 듣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공방전이 벌어질 정도로 팽팽한 분위기였지만 서로 아무 합의를 본 것이 없을 만큼 의견차이가 너무나도 컸다.

그 이유인즉슨, EU측이 미국과 동등한 대우의 협상을 위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다 공동예산의 50% 이상을 공동농업정책에 배정할 만큼 농축산업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 FTA보다 우리 축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한·미 FTA가 이번 FTA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EU의 적극적인 공세에 우리 협상단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협상 초반부터 최종안에 개방안을 제시하는 EU와 달리 우리는 보수적,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 EU로부터 미국에는 개방하고 우리에게 왜 개방을 안하느냐며 반발심을 자극해 유연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만일, EU측의 적극적인 공세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개방협상이 진행된다면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책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EU와의 FTA로 인한 피해가 가중돼 축산업 및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식량주권을 침탈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EU와의 FTA를 끝으로 개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EU와의 FTA 협상은 향후 진행될 협상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함은 틀림없을 것이다.

